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6년 10월 25일(일) 제1609호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2027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사랑부 교사 모집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신청

'다음세대 응원단'을 모집한다. 2027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와 사랑부 교사를 10월 25일(일)까지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 195명, 사랑부 교사 40명이 더 필요하다.

2027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와 사랑부 교사 지원 자격은 다음세대를 향한 사랑과 사명을 품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 세례교인, 공동체 순예배에 참석 중인 성도다.

차세대 교사와 사랑부 교사로 헌신하려는 성도들은 먼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의 추천을 요청한 다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사진 속 QR 코드에서 '온라인 교사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교사 모집 안내데스크'에 문의하면 된다.

2027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사사명교육'은 목요반과 토요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목요반은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 토요반은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운영한다. 교사사명교육은 본부교육 4주, 부서교육 4주 총 8주 동안 이어진다. 교사사명교육을 수료하면 OBC 2학점을 부여한다. 사랑부 교사교육은 장애인사역본부에서 별도로 한다.

김희선 교사(서빙고 유아3부)는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차세대 교사로 부르셨다"면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된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관련 기사 12면〉.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서빙고 사랑부 02-3215-3263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양재 사랑부 02-570-7438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I 시대, 참된 제자의 모습

10월 27~31일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2026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10월 27일(화)부터 31일(토)까지 막 오른다. 'AI 시대의 제자도'(마 16:24)를 주제로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6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 포문은 특별 강의가 연다. 10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인용 장로가 '세상 가운데 제자로의 삶'을 주제로 강의한다.

10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온라인 특강이 이어진다. 28일(수) 박태성 장로와 김영욱 장로 '제자도의 이해와 실천', 29일(목) 김홍주 목사 '로잔운동에서의 제자도', 30일(금) 김경훈 집사 'AI에 대한 성경적 관점 및 활용 가이드'를 주제로 강의한다.

본행사는 10월 31일(토)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AI 시대, 교회의 책무와 제자도의 실천'을 주제로 열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주제 강의,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패널토의, 대학청년부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 등을 한다. 참가자 자녀를 위한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양재 온유홀과 꿈아이홀에서 김지연 집사가 '미디어 리터러시(매스미디어에 담긴 잘못된 가치관을 성경적 관점으로 읽어내기와 바로잡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3215-3234

/ 홍하영 기자

2026 엔젤트리 사연 접수

11월 14일까지 홈페이지, 목회행정실, QR코드

11월 14일(토)까지 2026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하단 QR 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사연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사연신청서에는 선물하고 싶은 대상(가족, 친구, 이웃 등)을 적는다. 대상자의 특이사항, 성격, 좋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 이름, 신청 기관명, 연락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대상자의 연락처와 도로명 주소도 필요하다.

엔젤트리 선물은 5만 원 내외로 준비해야 한다. 케이크, 꽃, 고기, 생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과 도서상품권, 외식상품권 등 상품권은 신청할 수 없다. 명품이나 특정 브랜드를 표기해도 안 된다. 의류나 신발은 정확한 사이즈를 적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11월 1~15일 '열린순예배'

온누리 모든 공동체, 모든 순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이 '열린순예배'를 드린다. 11월 1일(일)부터 15일(일)까지 각 공동체 및 순의 사정에 맞춰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해 진행하면 된다.

2024년부터 시작한 열린순예배에서는 돌봄 순원(여러 사정으로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과 전도대상자를 초대해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다. 공동체사역본부와 전도사역본부가 공동 주관한다.

열린순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순은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된다(하단 QR 코드 참고). 예배 준비에 필요한 책자는 각 캠퍼스 공동체 담당 간사에게 받으면 된다. 열린순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3215-3239(공동체사역본부)
02-3215-3214(전도사역본부)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

11월 2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 본당

NGO 메디엑세스와 전도사역본부가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를 개최한다. 11월 2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구글폼(하단 QR 코드)으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저녁 만찬 포함). 신청서에는 초청대상자를 최대 5명까지 적을 수 있다. 5명 넘게 초청하려면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의사맞춤전도집회 '러브터치'에서는 방송인 김원희가 사회를 보고, 가수 범키, 가스펠 보컬팀 크룩스,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전한다. 문의: 02-570-7110

/ 홍하영 기자

기독교 세계관_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3면 | 특집_ 러브소나타 이와테 4-5면 | 기독문화_ 새로 나온 책 〈촉매적 리더십〉 9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문봉주 목사

느헤미야의 예배개혁

느헤미야 13:4~18

"'내 안에 있는 도비야를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고, 개혁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되게 해달라' 고 기도하십시오."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있고, 말씀이 회복되었음에도 70~80년이 지나도록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황폐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가서 기도하며 탄원한 결과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동안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봉헌식을 올려 드려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뒤로 미룹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일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84명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라고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서약식에서 그들이 맹세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들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둘째, 십일조를 비롯한 예물을 드려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넷째, 우상숭배의 원인이 이방 문화가 들어온 것이기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느헤미야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과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왕과 약속한 총독의 임기 12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를 몰아내자

6절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며칠 후' 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으로 보입니다. '야밈미' 라는 히브리어는 '며칠 후, 잠시 후' 라는 뜻도 있지만, 한 해가 저무는 무렵, 곧 1년 후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1년 후 정도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총독 임기가 끝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며칠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다 버리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1년 뒤에 와 보니까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예배의 개혁을 하고, 성전과 말씀과 성벽까지 회복했고, 부흥회까지 열어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1년 사이에, 지도자가 안 보이는 사이에 완전히 말씀을 떠났고, 성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갔을 때 가장 좋아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최고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 지도자가 왜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느냐고 여긴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역할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아십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를 지독하게 반대했던 사마리아 종족 산발랏의 부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인척 관계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성전 안에 들어와 살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배해야 할 성전에 예배를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지독하게 방해했던 사람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엘리아십 대제사장은 자신의 손자를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적과 내통하고, 이 세상과 결탁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비야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쫓아내야 합니다. 도비야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를 몰아내자' 입니다. 도비야를 몰아내려면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10~12절).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이 아닙니다. 다시 페르시아 왕의 고위 관료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휴가를 얻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가 엉망이 되고, 성전에 도비야가 들어가서 예배를 아예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야를 먼저 쫓아내고, 그의 세간살이를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본문은 왜 성전 예배가 황폐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십일조를 비롯한 예물들을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과 헌금을 하지 않으니 오늘 본문은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땅을 재산으로 주었지만, 제사장이 되는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국의 48개의 레위 성읍을 정해 놓고 조그만 텃밭을 주어서 가족들이 살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십일조를 통해서 받는 예물들을 가족에게 주어서 먹여 살렸는데, 성도들이 십일조를 안 드리니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일조를 안 드린 이유는 대제사장이 타락했고, 더구나 제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개조해서 대적에게 내어주었으니 십일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헌금의 의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므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16~17절).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집착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두로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 날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곧 안식일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서〉 13장은 결론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최종 정리하고 끝맺음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속 시원하게 개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로 끝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31절).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은 안식일과 성전 제사를 제대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이 완전히 끝났다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겠습니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실천하는 개혁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800년 역사를 끝내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비야를 쫓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나를 강화시킵니다. 생각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이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려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한계, 인간의 한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인간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부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끝맺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도비야를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고, 개혁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도비야를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시험관 아기 시술의 의미와 윤리성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 "시험관 아기 시술(체외수정/IVF)은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데, 누가 왜 그걸 반대할까?"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실험실에서 수정시키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체외수정은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나, 대리모를 고용해 임신 과정을 위탁하는 동성 부부 등의 커플이 선택한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가 시험관 아기를 선택할 때도, 이 시술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외수정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 불임 클리닉에서는 부모가 실제로 출산할 의도가 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배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표준 관행이다. 실제로 체외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많은 배아는 어머니에게 이식조차 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배아 중 상당수가 애매한 조사 기준이나 불분명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파괴된다. 또 어떤 배아들은 성별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폐기된다.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는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배아를 동시에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일부 배아들은 '감축' 또는 '임신 중단'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된다. 이것은 한 명 이상의 아기를 낙태하고 다른 형제자매는 계속 자라게 두는 것을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 결정 또한 어떤 배아가 더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임신이 된 이후에도 이식되지 않은 나머지 배아들은 '잉여 배아'로 취급된다. 이들은 보통 냉동 보관되어 미래 언젠가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 무기한 저장된다. 실제로는 상당수가 결국 폐기되거나 과학 연구용으로 기증되는데 이것 또한 결국 파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체외수정을 통해 많은 작은 인간 생명들이 만들어질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에서는 상당수가 파괴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별은 우생학의 한 형태, 즉 자의적인 '적합성'과 '질'의 기준에 따라 특정한 성격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솎아내는 행위다. 실제로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특정 배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장애가 있거나 원하지 않는 성별이라는 이유로 태아를 선택적으로 낙태하는 것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은 매년 모든 형태의 낙태보다 많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새로운 생명을 더 많이 탄생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적으로 생명 파괴로 귀결되고 있다.

둘째, 너무나 많은 인간의 배아가 냉동 보관되어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만들어졌고 '생존할 수 있다'고 판정되었지만 즉시 자궁에 이식되지 않은 배아들은 향후 임신을 위해 냉동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배아들은 끝내 이식되지 않은 채 냉동 상태로 남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약 150만 개의 인간 배아가 현재 불임 클리닉의 냉동고에 보관된 상태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부모에 의해 출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결국 폐기되거나 과학 연구용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 수많은 인간 생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무기한 정지된 상태로 두었다가 결국 파괴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미 이렇게 많은 배아가 존재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 엄청난 수를 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배아 입양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생명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셋째, 시험관 아기 시술은 성인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까지 상품처럼 다루도록 만든다. 체외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의 선별과 파괴는 종종 우생학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기 제조' 방식은 성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를 상품처럼 취급하는 여러 다른 관행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리모 임신이다. 수정된 난자를 전혀 무관한 여성의 자궁에 이식해 임신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대리모 제도는 반드시 체외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외수정과 생식세포 제공은 본질적으로 생식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들이 아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는 필연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

궁극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성인의 욕망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정당화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선택·판매되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참 지혜

오디세우스와 아브라함



서명수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호머의 '오디세이아'는 단순한 모험과 귀향의 서사를 넘어 서양철학에서 '지혜란 무엇이고',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식하는가'라는 묵직한 주제가 담겨 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목마를 구상해 트로이 원정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귀향하기까지 많은 역경을 지략으로 극복해 낸 지혜가 출중한 인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영리함을 과신한 나머지 그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디세우스의 오만함과 또 그로 인해 귀향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의 격언을 떠올렸을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즉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무지를 성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뜻이다.

놀란은 호머와 달리 영화에서 모든 신적 요소를 배제했다. 아테나 여신도 환영으로 처리했고, 대신에 주인은 손님을 환대하고, 손님은 주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우스의 법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신화적 이야기를 인간 문명의 이야기로 옮겼다. 오디세우스는 이 법도를 근거로 귀향길에서 만난 타자들에게 손님의 권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주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데, 폴리페모스의 동굴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신 것이 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왕국 이타카는 그의 부재를 틈타 왕비 페넬로페와 결혼해 왕위를 차지하려는 무례한 구애자들로 쑥대밭이 되어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에게 "자신이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성스럽게 여겨진 것들을 파괴했고, 트로이의 성벽을 불태운 날 세상 전체를 불태웠으며, 바다에서 온 사람들, 즉 문명 파괴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사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목마는 '신에게 바치는 공물'로 위장한 계략이었고, 그래서 제우스의 법도를 어긴 비열한 짓이자 신성모독이다. 게다가 이 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시돈을 속였으며, 트로이를 함락한 날에는 인간 도살자였고, 귀향 중에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다 잃었다.

놀란은 오디세우스의 이런 회한의 기억을 부각시킴으로써 상황을 타개하는 신화적 영웅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한 인간으로 그렸다. 귀환이 지연된 이유도 내적 고통과 죄의식 때문이며 그래서 망각으로 처리된 칼립소와의 7년은 기억에 대한 방어기제의 작용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과연 원정을 떠나기 전의 그와 동일한 존재일까? 놀란은 전쟁의 기억과 10년의 방황을 경험한 오디세우스가 자기 동일성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특히 구혼자를 몰아낸 후 원작과 달리,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시 떠나는 설정을 보면, 정체성에 대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시각이 읽힌다. 데리다는 인간의 정체성이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차이와 흔적 그리고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고 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브라함이 생각났다. 두 인물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모두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이 두 인물의 떠남은 모두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의 강압으로 떠났고(원작과 다른 놀란의 각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창12:1) 떠났는데 모두 정체성의 문제를 향해 간다는 점이 같다.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귀환을 통해 자신의 원환적 회복 또는 승화된 자기 이해로 나아간다. 영화는 다시 떠남을 통해 귀환이 총체적 자기 이해의 완결이 되지 못한다는 해석을 보여 준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떠남으로 시작된 여정을 통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언약의 당사자이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오디세우스는 목적지를 알고 간다. 하지만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히11:8)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을 부르신 분의 신뢰만으로 떠난다. 또 오디세우스가 여러 역경을 자신의 지혜로 헤쳐 나간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간다. 여기에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나가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나가는 신본주의의 차이가 드러난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안에 있다. 낯선 곳이든 익숙한 곳이든, 떠나든 돌아오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궁극적인 정체성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받은 은총에 따라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크리스천의 참 지혜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묻는다면, 아브라함의 여정은 '누구를 신뢰하며 떠날 것인가?'를 묻는다. 크리스천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떠날 수 있고, 그분이 맡기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

36번째 Love Sonata REVIVAL JAPAN 이와테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

현장 집회 871명, 온라인 중계 567명, 일본인 87명 결신
세미나, 가스펠나이트, CEO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이어져















지난 10월 21일(수)과 22일(목) 일본 이와테현 토사이 클래식홀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이와테'.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도시에도 어김없이 내려앉았다. 차고 넘치는 은혜에 감격한 이들이 한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난 10월 21일(수)과 22일(목) 일본 이와테현 토사이 클래식홀에서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요 7:38)을 주제로 열린 러브소나타 '이와테'에는 현장 집회 871명, 온라인 중계 567명이 참가했다. 일본인 참가자 87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첫 순서는 10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열린 세미나였다. 김경훈 집사가 'AI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고, 패널 토의도 이어졌다. 세미나 실황을 온라인(Zoom)으로 중계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가스펠나이트 집회를 했다. 이구사 세이지(어쿠스틱 기타리스트)가 특순하고, 요시오카 케이지 목사(신중환 목사 통역)가 '당신은 소중하고 귀하다'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요시오카 목사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우리는 어둠 속을 걷게 된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22일(목) 오전 11시에는 CEO 포럼이 있었다. 콘도 요시야 목사(러브소나타 이와테 실행위원장) 개회 인사, 이재훈 위임목사 환영 인사, 이용만 장로 간증, 와카이 카즈오 목사(주우형 선교사 통역) '이와테에서 세계로!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 강연 등을 했다. 와카이 카즈오 목사는 "후치자와 노에는 평생을 한국 여성 교육에 바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녀가 품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자"고 당부했다.

저녁 7시, 러브소나타 본 집회가 시작됐다. 크룩스, 이구사 세이지, 뮤지컬 배우 이지훈, 김영미 권사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요일 4:18~19) 메시지(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통역), 결신 초대, 회복의 세리머니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 러브소나타 이와테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박지혜, 남현영 기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한 걸음 내디디면

이와테는 15년 전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6천 명이 목숨을 잃은 아픔의 땅입니다.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는 만큼, 러브소나타 이와테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받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러브소나타에 용기 내 참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고, 제 딸도 복음을 전하다 상처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용기 내 모로코 선교를 다녀온 뒤 날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가 자녀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좋은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러브소나타에 참가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질 수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현주 집사 (안동교회)

그 사랑은 국경도, 바다도 넘어서

러브소나타 이와테 개최 소식을 듣고 참가했습니다. 이와테 지역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러브소나타 행사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죽음의 그늘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 행사를 위해 많은 한국 성도님이 바다를 건너와 섬기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도 바다도 넘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고, 그 사랑이 제 안에도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마츠다 레이 형제 (리후그리스도교회)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은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고 기독교 세가 매우 약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땅이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지역 교회의 협력을 이뤄냈고, 늦어도 끝내 열매 맺는 씨앗들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36번째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와 희망을 노래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는 2년 동안 준비했다. 한국과 일본, 교회와 교회가 손을 맞잡았다. 그 만남이 성도들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데웠다. 이 아름다운 연합과 만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러브소나타 이와테 실행위원장 콘도 요시야 목사를 만났다.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들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씨앗들이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 실행위원장 콘도 요시야 목사와 함께

기대보다는 불안이 앞섰던 게 사실이었다. 2년 전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콘도 요시야 목사의 마음이 그랬다. 일본 어디나 교회와 성도가 적지만, 이와테는 유난히 더 그렇기 때문이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러브소나타 이와테 집회가 열릴 수 있을까, 이곳에서 큰 집회를 개최한다는 말이 정말일까 싶었습니다.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실제로 이와테 선교의 열매로 이어질까?’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은혜를 간구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는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직접 일하신다는 것이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준비하는 2년 동안 많은 성도가 이와테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 성도님들도 밤낮없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와테뿐만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된 기도가 러브소나타 이와테의 원동력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콘도 요시야 목사는 무엇보다 한국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크게 감동했다.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선물이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기도가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용기를 줬다.

“많은 한국 성도님이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집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와테는 정말 작은 지역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 번 오기가 힘든 곳으로 꼽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에게는 ‘이와테’라는 지명조차 생소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곳에 한국의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섬기시고,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와테 성도님들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자 힘이 됐습니다. 그동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테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마이너리티(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의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기소침해져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성도님이 이와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 교회와 교회의 협력

콘도 요시야 목사는 러브소나타가 이와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본 교회의 협력’이었다.

“저는 23년째 이와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테 지역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 한데 모여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면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수확이자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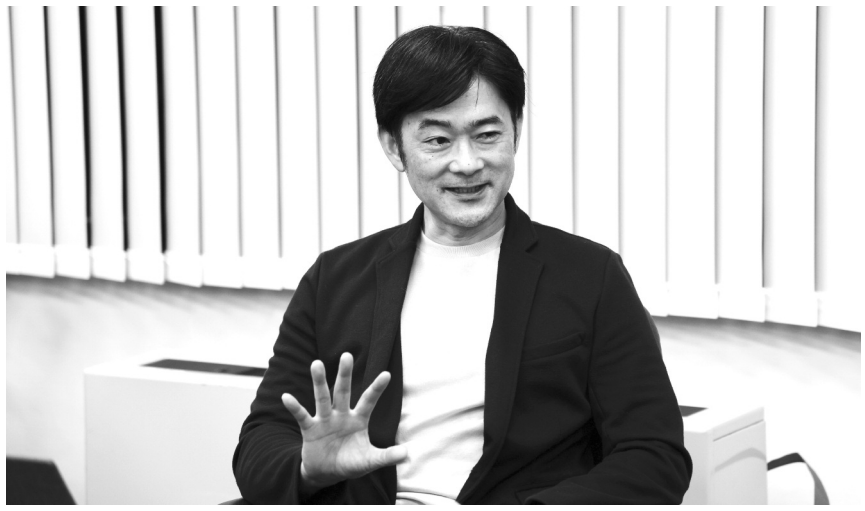
그동안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던 목사님도, 가보지 못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깊이 알게 됐습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새로운 교제의 장(場)을 열어줬습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 행사가 끝난 뒤에도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수확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역사의 상처를 넘어 진정한 친구로!

콘도 요시야 목사는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었다. 복음 안에서라면 두 나라가 역사의 상처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다.

“저는 한국 나이로 50세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관계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는 역사적 아픔과 상처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 한국인과 친밀하게 교제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류가 적어서 역사적, 정치적 소식을 접할 때면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러브소나타 이와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한국 성도님들과 일본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형제자매들의 간절하고 따뜻한 사랑이 일본 영혼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는 한국과 일본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콘도 요시야 목사는 23년 동안 목회하며 잊힐 만큼 오래전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기적을 여러 번 지켜봤다. 그래서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뿌린 씨앗도 더디더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끝내 열매를 맺을 거라고 확신했다.

“60년 전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예수님께 인도된 분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어린 시절에 뿌려진 신앙을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 수가 적다는 게 결코 선교의 실패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당장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심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뿌린 복음의 씨앗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이와테에는 작지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150여 년 이어온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수확의 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와테 교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러브소나타 이와테가 끝난 뒤에도 우리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26년 광야를 지나 구원의 길로!

남대문희망공동체 양명석 성도가 되찾은 희망

한두 평, 그 작은 방들이 빼곡한 남대문 쪽방촌 골목에 '엘림하우스'가 있다. 매주 일요일 남대문희망공동체와 여호수아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사역도 한다. 굶주린 주민들에게 빵과 도시락을 건네고,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한다. 평일에는 성경 필사, 창조과학 강의,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예배도 드린다.

양명석 성도(남대문희망공동체)를 그곳에서 만났다. 그가 엘림하우스를 찾은 건 3년 전이었다.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것을 찾아온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 그의 인생이 곧 간증이자 찬양이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쪽방촌 어르신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여호수아 청년부.

양명석 성도에게 세상은 처절했다. 희망이라고는 한 줌도 보이지 않았다. 한때는 건설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기 능력만 믿었고,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오만하고 교만했다. 1997년, 그 잘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 아는 사람을 찾아 전국을 떠돌며 신세를 졌고, 결국 노숙 생활까지 시작했다. 전국을 떠돌다가 4년 전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다.

그때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에 그분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원망의 화살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했다. 더 살고 싶은 의욕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다. 그때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기적처럼 살아났다. 죽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다.

배가 고파 찾은 엘림하우스에서

원망만 가득하던 그의 마음에 햇빛 한 줌이 어둠을 비집고 들어왔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난 뒤였다. 그는 서울역 한쪽에 웅크려 있던 양명석 성도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엘림하우스에 와 보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음식도 드려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음식을 준다는 소리에는 귀가 쫑긋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요량으로 엘림하우스를 찾았다.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삶이 펼쳐졌다.

엘림하우스에서 '남대문희망공동체'라고 소개하는 난생처음 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양명석 성도가 쪽방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너무 고마워서 꾸준히 엘림하우스에 나왔더니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다. 그때만 해도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의심했다.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물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래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일대일제자양육'이라는 성경 공부를 수료하기로 했다.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 재미가 너무 없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렇게 7~8주가 지났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조금씩 느껴졌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만 생각했었는데, 돈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진 게 많았던 시절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했고, 행복했다. 그 지루하던 성경 공부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만분의 일이라도…

지금 양명석 성도는 매일 새벽 엘림하우스에 나와 성경을 읽는다. 엘림하우스에서 하는 사역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백내장과 허리디스크, 복막염 등으로 병원에 세 번이나 입원했다.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쳤다.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욕심과 교만이 가득했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

돌이켜보면 건설업이 부도나고 노숙까지 했던 시절은 광야에서의 훈련이었다. 26년이나 이어진 그 훈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천국을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희망을 노래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의 만분의 일이라도 이웃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것을 삶과 행동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역칼럼

낮고 낮은 작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문제헌 집사
(남대문희망공동체 팀장)

온누리교회의 서울역 일대 쪽방촌 사회선교는 2010년부터 시작했다. 긍휼사역에 중점을 두고 첫발을 뗐다. 2019년 사회선교본부 소속 남대문희망공동체가 공식 인정됐다. 2022년 말에는 지금의 예배처소(엘림하우스)를 동자동에 마련하고, 예배공동체의 기반을 갖추었다.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는 쪽방촌을 '작은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하드웨어인 예배당은 번듯했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예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문제를 직시한 사역자들은 일대 개혁을 예고하고, 남대문희망공동체를 아이케어 시스템에 정식 등록했다. 2023년부터 사역 범위를 긍휼의 차원을 넘어 예배, 양육, 돌봄 3대 사역으로 확장했다.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온누리교회 지역공동체 시스템을 접목했다.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하나둘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새신자 교육 과정이 성공할 수 있을까?", "순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될까?",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할 수 있을까?"

작은방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마음 한편에 품었던 질문이다. 결론은 기우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도시락만 받아가던 사람들, 외로움을 술로 달래며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들이 정식 등록교인이 되고, 순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작은방 식구 12명이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료했다. 숫자 '12'가 갖는 성경적 의미를 넘어 한 가지 소망을 품었다.

"그들이 작은방의 사도로, 작은방을 섬기는 사역자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 소망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한 형제가 작은방 성도의 전도로 새신자 교육과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다. 온누리교회 등록성도가 되고,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과정까지 마쳤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붙잡고 있던 술을 끊었다. 작은방은 더 이상 선교의 '끝'이 아니다. 작은방 식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출발점'이 됐다.

최근에는 작은방 식구 5명이 '동행팀' 위원으로 참여했다.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형제와 함께 병원에 가고, 아픈 형제를 돌본다. 서로의 삶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역자가 작은방 식구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은방 식구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 도시락만 받아가던 사람이 예배를 섬기고, 양육자를 꿈꾼다. 돌봄 받던 사람이 아픈 형제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전도 받던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또 하나의 꿈을 꾼다. 이번에 세워진 12명의 양육자가 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꿈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낮고 낮은 작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이 아름다운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기다린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된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나누면 된다. 작은방 식구들의 손을 잡아 주고,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어 주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서울역 작은방에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 변화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갈 동역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문의: 010-4561-5192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앞두고

AI 시대의 '별난 제자들'이 사는 방법

편리함 아닌 수고로, 기계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하선희 집사
(미래성장위원회, 강남E공동체)

어떤 신기술을 두고 이런 비판이 나왔다.

"이 기술은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가 아니라 지혜롭다는 평판만 얻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기술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기억하는 능력을 잃고 외부에 기대게 될 것이다.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실제로는 무지하지만,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비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이 쓴 〈파이드로스〉에서 문자를 비판하는 대화다. 테우스가 자신의 발명품인 문자가 사람들의 기억력과 지혜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자랑하자, 이집트 왕 타무스가 응수하는 내용이다.

AI가 말하는 구원, 예수님이 주신 꿈

이 옛날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경고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어는 인간 고유의 것인데,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하는 AI는 유창한 언어로 '잘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데 능하다. 유창하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AI를 인간으로 착각하기도 쉽다. 하지만 말을 잘해서 박식해 보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AI는 한 개인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윤리적이며, 인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도 풀어낼 거라고 홍보한다. 인류가 더 많은 일을 이루도록 돕고, 우주와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우리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까지 충족시킬 거라고 자랑한다. 이 말은 충분히 빠르지도, 선하지도, 똑똑하지도, 생산적이지도 않고, 이해력도 떨어지는 유한한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AI를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한계에 갇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AI 담론의 바탕에는 인간을 계산과 성능으로 평가하는 기계로 축소해서 보는 인간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안다. 그 해결책도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 '특이점'의 도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임을 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보다 더 깊다.

"이 기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섬기는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려는 꿈은 무엇인가?"

그 답에 비추어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해야 한다. 수고 없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기술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인간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일러 주신 인간의 꿈은 분명하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반면 몇몇 기술 엘리트들이 제시하는 꿈은 피조물이자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꿈을 분별없이 따른다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 우상과 같이 되리로다"(시 115:8)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기계처럼 될 것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기술이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계속 별나게 살라"

실제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다던 구전 전통을 상상도 못 한다. 부모님 휴대폰 번호조차 외우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지능지수가 더 낮은 세대를 보고 있다는 경고를 듣는다. 그런데 그 해답을 "인간이 더 어리석어지는 문제보다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도 많다. 이런 시대에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겔 33:10)

다행히 우리에게는 부활하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 소망이 있다. 게다가 침묵하면 AI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리에 지배당할 수 있기에 새롭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성경적 지침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많다. 〈도미니언〉의 저자 톰 홀랜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별나게 살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 AI 시대 유별나게 살아갈 방법은 다양하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되, 챗봇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처럼 대하지 말자. 챗봇을 사람처럼 대할수록 인간과 기계를 같은 수준의 존재로 여기게 된다"(존 스톤스트리트).

"교회인 우리가 제자의 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삶으로 초대한다면, 교회는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와 몸으로 함께하고 싶어 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고, 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칼 트루먼).

"AI를 인간관계를 대신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인간의 창조성과 판단력을 키우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하자"(압두 머리).

"인간으로 사는 것은 어렵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쉽게 해 주지만, 그동안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계속 가져가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기억과 기술, 지식을 우리 안에 기르자. 시를 외우고, 동화를 읽고, 야영을 가고, 정원을 가꾸자. 지역 공동체와 가족, 인간관계에 참여하고 기도하자. 책과 손에 잡히는 물건을 간직하고, 인간의 능력을 줄이기보다 넓히기 위해 어떤 업무나 영역을 AI에 맡길 수 있고, 맡겨야 하는가 묻자"(조나단 파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AI보다 사람을 먼저 찾으라. 전문가에게 물어볼 일을 AI에게 묻는 선택이 쌓이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된다. 사람들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AI보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AI가 주는 편안함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을 알지만, AI는 '머리를 쓰지 않으면 고통도 없다'고 하는 셈이다. 그러나 성경은 삶은 힘들 것이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좋다고 가르친다"(그레첸 하위징거).

"더 쉬운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하자. 운동하면서 지게차가 역기를 대신 들게 하지 않듯,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스스로 사고해야 한다 … 인간의 아기는 약 100W의 에너지 공급만으로 다양한 인지 활동을 해내지만, GPT-3를 한 번 학습시키는 데는 189,000kW의 전력이 든다는 연구처럼,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대신하려는 꿈보다 단순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 하지만 한 인격이 형성되는 가정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 TV만 보고, 음악을 같이 만드는 대신 스피커만 듣고, 요리하는 대신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수고와 기술을 보고 배우며 자랄 기회를 잃고, 인격의 형성이라는 가정의 역할이 붕괴된다"(앤디 크라우치).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생각해 보니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도 6·25 전쟁통에 총알이 박힌 재봉틀을 페달로 밟아 돌리며 옷과 이불을 드르륵 만들어 내는 마술사 같았다. 고추부각처럼 손이 많이 가는 반찬을 뚝딱 만들어 내는 과정을 홀린 듯 하염없이 바라보던 시간은 지금도 생생하다. 컵라면에 물만 부어 주는 할머니를 상상할 수 없듯, 나도 훗날 마술사 같은 할머니로 기억되려면 그에 마땅한 희생을 해야 할 터이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전 6:12)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AI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된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기술이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올해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AI 시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바로 이 주제의 대학청년부 공모전과 10월 27일(화) 오픈예배를 시작으로 10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네 차례의 사전강의가 진행된다. 10월 31일(토)에는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다양한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대학청년 우수공모작 발표 및 시상을 한다. 참석한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적 성교육 '미디어 리터러시(매스미디어에 담긴 잘못된 가치관을 성경적 관점으로 읽어내기와 바로잡기)'도 제공한다. 이 모든 순서가 AI 시대 세상과 구별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휴전은 왔으나 평화는 오지 않았다

전쟁의 시대, 크리스천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강찬욱 장로
(이촌공동체,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매일 전쟁 뉴스를 접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휴전과 충돌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현대 전쟁은 상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쟁은 총과 포탄이 오가는 군사적 충돌을 넘어 정치·경제·외교·기술·정보·심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가 행위다. 오늘날 전쟁은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바라봐야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19세기 프로이센의 군사 사상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규정했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선택하는 극단적 수단이라는 뜻이다. 동양의 전략가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상책이라고 가르쳤다. 두 사람의 통찰은 전쟁은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만난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의도한 목적의 달성 여부, 전쟁 이후 양측의 상태, 어떤 정치적 질서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전쟁의 승패, 개시 목적 달성 여부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이기고 있는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려면 전쟁을 개시한 쪽이 당초 내세웠던 정치적 목적(이유)을 달성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며 내세운 세 가지 핵심 명분과 목적을 살펴보면 승패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탈 나치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반러·극우 세력을 제거하고 친러시아적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반러 정서와 항전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탈러시아적 정체성만 더욱 공고해졌다.

둘째, 탈 무기화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겠다는 목적 역시 실패에 가깝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첨단 무기체계와 빅테크 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나토(NATO) 규격의 강력한 현대적 군대를 갖추게 되었다. 나토는 오히려 스웨덴과 핀란드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동진을 강화했다.

셋째, 젤렌스키 정권의 종식이다. 수도 키이우를 단숨에 함락하고, 젤렌스키 정권을 축출하려 했던 러시아의 초기 전략 목표는 완전히 수포가 되었다. 전쟁을 개시한 주체가 내세운 목적 중 어느 것도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승리'라 부르기는 어렵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냉혹하며, 국가는 무엇보다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국제사회에는 '공정과 정의'를 강제할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각국은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는 '자조(Self-help)'의 원칙에 따라 세력 균형과 억제 전략을 발전시킨다. 무기가 전쟁 수행 수단인 동시에 억제 수단이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군비 증강은 한 국가의 방어 전력 증강이 상대에게 공격 준비로 인식되어 상호 불신과 긴장감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를 낳기도 한다.

현대의 분쟁은 선과 악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역사, 영토, 자원, 세력 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다. 크리스천은 현실을 직시하되, 인간의 죄성이 국가와 권력 속에서도 작동함을 기억하며 어느 국가나 지도자도 절대 선으로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전장

오늘날에는 정치, 경제, 사이버 공간, 소셜미디어까지 모두 전쟁의 수단이 된다. 적의 영토를 직접 점령하지 않고도 금융망을 마비시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상대국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 이 양상을 '4세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부른다.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해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통합해 상대국의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적 결속을 약화하는 전략이다. 최근 주목받는 '인지전'은 생각과 판단, 감정 같은 인간의 내면을 전장으로 삼는다. 국민이 '무엇을 믿고 불신할 것인가?'를 조종해 의식을 지배하려는 전략이다. 이 양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전통적 고비용 무기체계를 뒤흔든 '비대칭 가성비 전쟁'이다. 수백억 원짜리 전차가 불과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FPV Drone)에 파괴되는 현상이 일상화되었다. 저렴한 드론(Drone/UAV)이 정찰과 타격을 주도하고 있다. 물리적 파괴인 '하드 킬(Hard Kill)' 뿐만 아니라, 전자전과 재밍(Jamming)으로 적의 지휘 통제망을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Soft Kill)'의 중요성도 급격히 높아졌다. 이처럼 복잡해진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미국의 '모자이크 전쟁(Mosaic Warfare)'이다. 모자이크 조각처럼 드론·인공지능(AI)·센서 등 작고 분산된 전력들을 네트워크로 유연하게 연결하는 전략이다. 현대전은 여러 군사·비군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무경계·다차원 전쟁'이다. 이 과정에서 '빅테크(Big Tech) 기업'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행위자가 등장했다. 위성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민간 기업의 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이와 함께 AI는 현대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정찰, 정보 분석과 예측을 넘어 표적을 스스로 식별하고, 공격을 결정하는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까지 현실적인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인간의 생사를 알고리즘에 위임할 수 있는가? AI가 오작동해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윤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는 있어도, 양심을 학습할 수는 없고, 생명의 존엄성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

기술은 양심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크리스천의 세계관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 선언한다.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생명은 제거해야 할 변수가 아니며, 기술은 인간을 섬기는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생사를 결정하는 최종 도덕적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체계화된 '정의로운 전쟁론'은 자기 절제와 최후 수단의 원리다. 전쟁을 개시할 정당한 명분과 절차를 묻는 '전쟁 개시의 정의', 민간인을 보호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금하는 '전쟁 수행의 정의', 가혹한 보복을 금하고 사회 재건을 도모하는 '전후의 정의'라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인류가 핵무기 개발 이후 억제 규범을 만들었듯, AI 시대에는 "무엇을 금지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에 관한 거버넌스와 인간의 양심을 성찰해야 한다.

인간이 왜 권력을 탐하고 타인을 지배하려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성경이 가장 깊이 설명한다. 야고보는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약 4:1)라고 지적한다. 성경은 전쟁의 근원을 인간 마음에 자리한 탐욕, 교만, 두려움에서 찾는다. 지도자 역시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국제사회는 언제나 힘과 이해관계의 영향 아래 놓인다. 인간 이해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현실주의는 현실을 인정하되 절대화하지 않는다. 순진한 낙관주의나 냉소적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을 바라본다. 무력과 국가 권력을 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정하지만, 구원의 수단으로 우상화하지 않는다.

교회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에서 "기술과 권력이 객관적 도덕 기준인 양심과 인간 존엄성을 잃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가"를 오래전에 예리하게 지적했다. 국가 권력은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정당한 책임이 있기에 공동체를 보호할 방위력과 전략적 억제력은 현실 세계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애국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외면하는 낭만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평화는 선한 의지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책임 있는 능력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우리는 안보와 평화 중 어디에 편향되어 있는가?"이다. 평화는 불의를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다. 진실과 정의를 붙들고 증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용기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특정 정치 진영이나 국가를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 정의, 생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안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국가를 우상화하지 않고, 기술을 수용하되 인간의 존엄을 타협하지 않는 자세다. 교회는 특정 세력을 복음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위정자들이 정의롭고 절제된 결정을 내리도록 윤리적 양심을 깨우는 파수꾼이어야 한다. 평화는 정치적 협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탐욕과 증오, 두려움이 남아 있다면, 전쟁은 언제든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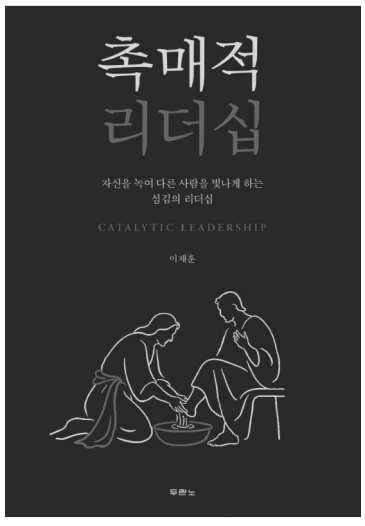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이웃 간의 관계가 정의롭게 회복되는 '샬롬(Shalom)'이다. 국제사회는 국가이익과 세력 균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AI와 빅테크 기업들은 전쟁의 방식을 바꿔 갈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힘은 도덕적 책임 아래 놓여야 하고, 정의는 국가이익보다 높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참된 평화는 힘의 균형만이 아니라 인간의 회개와 관계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히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하이브리드 교회'의 성도들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데에도 성숙한 분별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힘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평화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진영의 논리를 넘어 진실과 정의, 생명의 편에 서되, 섣부른 판단과 편향된 확신을 경계하는 절제된 자세가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조화롭게 연결하되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공동체다. 우리 역시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진리와 사랑, 정의와 화평, 믿음과 책임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 분열과 증오가 깊어지는 세상에서 어느 한쪽의 승리만을 외치기보다, 상처 입은 이웃을 품고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휴전은 총성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참된 평화는 인간의 마음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것이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책임이자, 하이브리드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다.

새로 나온 책

빛나게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촉매적 리더십〉
이재훈 저 | 두란노 | 21,000원

최근 읽고 싶은 리더십 관련 책이 별로 없던 차에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촉매적 리더십〉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표지의 '자신을 녹여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한 문장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듯했다. 저자는 '촉매적 리더십'을 소금에 비유한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변화를 일으키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고 잊히는 '촉매제'다. 저자는 서론에서 '촉매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려면 '소명', '용기', '협력'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명'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속해 있으며,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에서 나온다. '용기'는 무대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마음,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 개의치 않는 마음이다. '협력'은 권한을 동역자들에게 최대한 위임하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다. 촉매적 리더십은 성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섬김 중심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1부는 성경 속 조용한 거인 세 사람을 소개한다. 갈렙은 다수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며, 사람들이 꺼리는 어려운 자리를 택했다. 요나단은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은 왕자였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목숨을 걸고 나섰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자신의 권리를 주저 없이 내려놓았다. 바나바는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주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울을 데려와 자신의 무대를 내어준 촉매적 리더였다.

2부는 교회사 속 세 사람을 다룬다. OMF의 두 번째 대표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는 직책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리더였다. 그는 가장 큰 단체를 이끌면서도 가장 작아지기를 택했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지켰다.

62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한 조지 뮬러는 자신을 주인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로 인식했다. 그는 후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라브리(피난처) 공동체'를 세운 프랜시스 쉐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으며, 오직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며 공동체를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은 작은 식탁에서 한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빛났다. 그는 자신이 빛나기보다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돕고 조용히 사라지는 촉매적 리더였다.

3부는 책의 절반을 할애해 故 하용조 목사님의 촉매적 리더십을 소개한다. 하용조 목사님은 아팠기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역을 부교역자에게 위임해 후배를 양성했다. 또 하용조 목사님은 평생 비판하는 소리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 "목사가 바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있는 사람이기에 때로 광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리더의 역량보다 성품을 강조했다. 목회하며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 상황에서는 물처럼 흐르는 리더가 되라고 했다. 또한 리더는 자신이 떠나도 교회가 더 잘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재정의 투명성도 중요한 영성이라고 보았다. 선교는 모든 성도의 몫이라며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도전했다. 마지막으로 온누리교회는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섬김의 교회론'을 주장했다.

저자는 예수님의 촉매적 리더십을 소개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청지기"라고 말씀하셨다. 또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 권세로 사람을 돕고 섬기셨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은 모두 예수님의 리더십을 실천한 이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존경할 만한 건강한 리더가 없는 '리더의 부재' 상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이 성공하려는 리더가 수두룩한 사회에서 촉매적 리더십은 '역행하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가치가 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고백이 많은 사역자에게 도전을 주었듯, 〈촉매적 리더십〉도 교회 안팎의 리더들에게 도전을 주는 책으로 귀하게 쓰일 것을 확신한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의심과 질문 사이에서 '기독교 변증'

"기독교는 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불편한 물음이다. 현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인데,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을 종교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정체성과 본성을 탐구하는 철학적·신학적 인간론과 연결된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반대로 '인간은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자.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인류는 인간의 이성, 과학, 교육, 진보, 그리고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20세기 일어난 두 차례 세계대전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 깊은 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20세기 중·후반에 발생한 반인도적인 두 가지 전쟁 범죄를 생각해 보자.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와 32만 명이 학살된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는 인간 본성의 사악함과 끔찍한 죄악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국가가 만든 실정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은 모두 선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홀로코스트를 설계한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은 전범재판소 법정에서 자신은 '독일법을 준수하고, 총통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논리로 전쟁 중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한 이후 집필한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무사유(thoughtlessness)'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사유하지 않는 관료의 전형'이다. 아이히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불의한 법을 따라 행동한다면 누구든지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전범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법 위의 법'이라는 초법적 정의에 입각해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명령과 독일의 실정법을 잘 준수했던' 아이히만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당시 미국 남부의 여러 주가 인종 분리와 흑인 차별을 제도화한 '인종 분리법(짐 크로(Jim Crow) 법)'을 폐지하고, 흑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다가 29차례나 수감되었다. 그는 짐 크로 법을 도덕법·자연법·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불의한 법(Unjust law)으로 간주했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도했다.

아이히만과 킹 목사를 비교하면, 실정법의 준수 여부로 선한 시민을 판정하지 않는다. 실정법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더 높은 수준의 선의 기준, 모든 문화와 국가 정책을 판단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죄의 실재를 해체하거나 상대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선과 악을 주관적인 깨달음으로 환원하는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 존재의 도덕적 타락과 악의 보편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인간의 본성과 문화 속에 뿌리 깊은 악함이 각인되어 있다는 기독교적 관점이야말로 홀로코스트와 인종청소, 각종 범죄를 겪은 인류의 현실에 대해 보다 정직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은 성경의 창조론과 인간론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난다.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에 따르면, 사람은 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선미(眞善美)를 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타인을 향해 범죄를 저지른다. 창조된 적이 없다면 진선미를 모를 것이고, 타락한 적이 없다면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원죄 교리를 통해서 잘 설명된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깊은 죄성을 자각한 사람들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라는 바울의 외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된 소식으로 들려올 것이다.

* 이 글은 책 〈기독교 변증 카운슬러〉(김기호, 김한나 저)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다락방 1사역팀, '경청의 식탁' 운영

월 1회 사역지에서 예배드리는 현장 순예배 지원

사회선교본부 '1다락방 1사역팀'이 다락방과 연계된 사역지를 월 1회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 순예배'를 도입하면서 '경청의 식탁'(Coaching&Dining)을 운영한다. 1다락방 1사역팀 리더십이 다락방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며 상황과 필요를 듣고, 사역지 연결과 사역 방향, 방법 등을 안내하는 목적이다. 경청의 식탁 신청은 사회선교본부에 하면 된다(02-3215-3434).

현장 순예배 참여 절차는 세 단계다. 다락방이 사회선교본부에 문의해 사역지를 연결받고(1단계), 현장 담당자와 일정, 참여 인원 등을 사전 협의한다(2단계). 사역지에서 함께 예배드린 다음 다락방장 또는 공동체 담당자가 활동 내용, 사진, 현장 필요 사항, 참여 소감 등을 정리해서 사회선교본부에 제출하면 된다(3단계). 문의: 010-2443-4192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다락방 1사역팀 및 이촌공동체 리더십이 '경청의 식탁'을 진행하고 있다.

'Love Dive' 참가자 모집

크리스천 M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 프로그램 'Love Dive'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4일(토) 오후 1시 대학로 이룸 2층 안디옥홀(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1월 8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회비는 3만 원.

Love Dive는 하나님 안에서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올바른 결혼관과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개그맨 오지헌과 이서진 목사(여호수아청년부)가 강의한다. 20대 크리스천 대학생과 청년이 대상이다.

문의: 010-4880-4339

두란노 시어머니·장모학교 본부 5기 모집

11월 4일~25일 매주 수 오전 10시

두란노 시어머니·장모학교 본부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시어머니와 장모,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장모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11월 3일(화)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 시어머니·장모학교 본부5기에서는 아름다운 동행_언약, '용서하고 사랑하기_은혜', '섬기는 사랑_능력부여', '신뢰하고 신뢰받기_친밀감'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0

온누리 예배학교 개강

11월 7일까지 아이스쿨, 회비 2만 원

온누리 예배학교가 개강한다.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선교관 1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7일(토)까지 아이스쿨이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온누리 예배학교는 예배와 찬양의 의미를 깨달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배 순서와 합당한 태도, 예배자의 정체성과 삶 등을 배운다.

문의: 010-2582-9851

내적치유학교 72기 참가자 모집

11월 20~22일 여의도침례교회 드림센터

내적치유학교 7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의도침례교회 드림센터에서 진행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최용준 목사, 허철 선교사, 김성욱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11월 19일(목)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교재비, 간식비, 준비물비 등 포함). 목회자는 50%, 부부와 가족은 20% 회비를 할인해 준다.

문의: 010-2310-4103

'바른 성(性), 삶의 품격을 세우다' 세미나

11월 7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사)행가래운동본부에서 '바른 성(性), 삶의 품격을 세우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7일(토)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여의대방로 67길 21)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1월 1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바른 성(性), 삶의 품격을 세우다' 세미나에서는 송흥섭 집사(산부인과 전문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이사) '성, 다시 묻다', 박세나 집사(산부인과 전문의) '성, 생각하다', 조용호 교수(전주비전대학교)·강미향 본부장((사)행가래운동본부) '성에 담긴 축복의 비밀'을 주제로 강의한다. 자녀에게 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 성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는 성도, 교사와 목회자, 상담자, 청년, 성인 등이 대상이다.

문의: 010-6661-7212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가을 콘서트 '사랑을 노래하다'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교대 사향문화관

강남E공동체가 서울교육대학교 가족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가을 콘서트 '사랑을 노래하다'를 10월 31일(토) 오후 4시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연다. 서울교육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별도 참가신청 없이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가을 콘서트 '사랑을 노래하다'에서는 워십 엘림, 팝페라 라그넬, 퓨전국악 Allstrings, 싱어송라이터 이고은, 전자바이올린 한미나 등이 공연한다.

황진기 전도팀장(강남E공동체)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위한 가을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의: 010-2739-4433

후원: 카카오뱅크 79421736168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

10월 26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순형홀

스포츠전도팀이 개최하는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이 10월 26일(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25일(일)까지 전화(010-8080-6967)로 하면 된다. 교회와 공동체 리더십, 청소년 사역자, 교사, 학부모, 체육계 종사자, 스포츠 지도자, 스포츠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가 그 대상이다. 한건수 대표(국제크리스천코치협회 협회장)가 강의한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스포츠 선교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 선교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8080-6967

맞춤형 일터 세미나 개최

11월 10~24일 매주 화 선릉더모임센터

일하세 플러스에서 '일터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세미나(이하 맞춤형 일터 세미나)'를 연다.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릉더모임센터에서 진행된다.

맞춤형 일터 세미나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인용 장로, 박기일 장로, 방선기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11월 1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4949-0254

Love & Marriage 4기 Public 참가자 모집

11월 21일~12월 5일 매주 토 오후 2시

Love & Marriage 4기 Public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8일(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미혼 남녀 각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12만 원.

Love & Marriage는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건강한 만남과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남녀가 자신을 이해하고, 성숙한 관계를 세워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사)행가래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가 후원한다.

문의: (형제) 010-4928-0707

(자매) 010-3340-7039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예술로 잇는 우리' … 11월 14일(토)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 갤러리(신관 1층)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영락주간보호센터 소속 공성준, 공성호, 권사무엘, 김정민, 김정식, 손정은, 오지현, 유다은, 이현규, 장종원, 최백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2-2280-0278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6편 공개

4라운드 진출자 12인 발표 … TOP7 향한 경연 본격화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6편이 10월 25일(일) 공개된다. 이번 방송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천사의집'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한다. 경연 무대는 3라운드가 진행된다. '세상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듀엣 미션을 한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음악으로 찬양을 접하고, 복음을 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4라운드 진출자 12인이 발표되면서 TOP7을 향한 경연이 본격화된다.

한편 '힐링보이스' 1~5편의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240만 회를 기록하며 국내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10월 22일 기준). "힐링보이스 덕분에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찬양을 듣고 있다", "힐링보이스를 시작으로 더 많은 기독교 예능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한다" 등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힐링 보이스' 3라운드 무대를 준비 중인 참가자들.

'힐링보이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기독 OTT '퐁당', 오후 5시 CGN TV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경연에서 선보인 찬양 무대 음원은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박구병 장로, 평남노회장 당선



박구병 장로(관악금천공동체)가 지난 10월 20일(화) 새은혜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남노회 제205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에 당선됐다. 평남노회는 온누리교회가 속한 노회로, 151개 교회와 59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박 장로는 "부족한 사람에게 노회장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과 모든 총대께 감사드린다"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눠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노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6 차세대 성탄절 독후감 대회

11월 29일까지 접수, 12월 20일 시상식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2026 차세대 성탄절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꿈이자라는땅 소속 어린이다. 〈어린이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연습〉, 〈오스왈드 챔버스가 들려주는 어린이 산상 수훈〉 중에서 한 권을 골라 읽고 독후감을 쓰면 된다.

독후감은 200자 원고지에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분량은 유년부 3장 이상, 초등부 5장 이상, 소년부 7장 이상이다. 원고는 11월 29일(일)까지 온누리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11월 28일까지 도착한 작품만 인정한다.

2026 차세대 성탄절 독후감 대회 시상식은 12월 20일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온누리도서관에서 열린다. 꿈땅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각각 감동상과 은혜상을 수여한다. 우수작은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을 준다.

문의: 02-3215-311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초등 1학년~중등 1학년 대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대상이다. 타 교회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에서 한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은 2002년 홍정표 장로(성가사)가 창단한 온누리교회 어린이 합창단이다. 정기연주회, 해외비전교회 및 CGN 해외 지부, 국내 지역 교회 등지에서 합창과 전문적인 핸드벨 연주를 병행하고 있다. 최영은 성가사가 지휘하고 있다.

문의: 010-5091-1862

서빙고 큐티스쿨 179기 참가자 모집

10월 31일까지 아이스쿨

서빙고 큐티스쿨 17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양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10월 31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7131-1284

2026 사르밧 프로젝트, 2억 2천만 원 헌금, 백미 3,414포 전달

2026 사르밧 프로젝트에 모인 헌금이 2억 2천여만 원(225,937,091원)으로 집계됐다. 나눔대상은 개인과 기관을 합쳐 2,385건을 선정했고, 백미 20kg 3,414포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은 공동체가 추천한 대상자에게 현지 업체에서 직접 발송한다.

문의: 02-3215-3434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에'

NGO 메디엑세스 의료봉사 사진전

NGO 메디엑세스 의료봉사 사진전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에'가 10월 24일(토)부터 11월 1일(일)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원형카페에서 열린다.

NGO 메디엑세스는 1985년부터 38개국에서 20만 6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지금까지 1만 1천여 명의 의료인이 함께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의료봉사 현장을 '진료와 수술', '봉사의 손길', '다음은 당신'을 주제로 나눠 담았다.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마주한 의료진과 약을 건네고, 길을 안내하며 아이들을 돌본 봉사자들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2-570-7110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모리타니아 'PBN 사업' 학술논문 3편 게재

NGO 더멋진세상이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지원한 영양결핍 아동 대상 통합 영양 개선 프로그램 'PBN(Programme Better Nutrition)'을 다룬 학술논문 2편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됐다. 후속 논문도 11월에 실릴 예정이다.

첫 논문은 지난해 12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학술지 〈국제개발협력〉에 실렸다. 조미경 선교사 등이 2025년 4~6월 29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두 번째 논문은 올해 초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 게재됐다. 조미경 선교사와 황은영 교수(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가 모자음악놀이의 유의미성과 그 효과를 증명했다.

세 번째 논문은 오는 11월 KOICA 학술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될 예정이다. PBN 2기를 수행한 지역 보건요원 20명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다. 교육과 실습을 거친 요원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주체로 성장해 온 과정을 담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있다.



콘솔라토르싱어즈, 온누리복지재단에 후원금 전달

콘솔라토르싱어즈가 지난 10월 7일(수) 온누리복지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9월 18일(금) 열린 제5회 자선음악회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콘솔라토르싱어즈는 복지시설을 찾아 클래식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연단이다. 2018년 창립했다.

콘솔라토르싱어즈 단장 이솔 집사(관악금천공동체)는 "함께해 주신 출연진과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행복한 삶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음악으로 이웃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지혜 기자

10월 세례자

〈서빙고〉
박지원 961021
한지윤 871017
유아
구 현 230710
구도윤 유하영
김건우 260313
김경원 김동연
김지온 251027
김성욱 이찬양
김하린 260417
김동훈 강현희
박지온 251010
박희도 정주희
오나엘 250606
오규택 김혜인
이도하 251217
이재호 최지원
이요한 250621
이찬규 이새롬
표이든 250717
표세현 유사라
표이안 250717
표세현 유사라

〈양재〉
배지환 241206
배종욱 함하나
오이앨 251118
오충열 채송화
이윤호 250708
이종우 성수경
한수아 251021
한성희 이성령

〈도곡〉
입교
김루아 241025
김금남 김하나

〈대학청년〉
■허브
박재진 990530
송서영 000111
이시훈 050315
조효민 040131
입교
김하연 980610

■SNS
금병주 971112

장윤정 970110
입교
한승은 920131
유아
윤해음 250903
윤수용 김서안

■SNS CROSS
박재서 930923
장서현 980303
최정재 910414

▌차세대 교사 간증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된 자리

/ 김희선 교사(서빙고 유아3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세상의 모든 자녀가 너의 자녀'라는 마음을 주셨다. 다음 세대의 어머니라는 사명을 받고 올해 유아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이전 교회에서 10년 넘게 교사로 섬겼지만, 하나님은 전혀 경험이 없던 유아부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어린 영혼들을 문 앞에서 맞으며 이름을 불러 주는 곳에 나를 세워 주셨다.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게 하셨고, 새벽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다. 어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샘솟게 하셨다.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드리는 것이 두려워 엉엉 울고 떼쓰던 아이들이 어느덧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집중한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외친다. 이 변화를 볼 때면 사랑의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렸던 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감동이 밀려온다.

올해 여름 캠프에서 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재발해 힘껏 헌신하지 못했다. 마음의 짐이 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귀한 청년 선생님을 동역자로 보내 주셨다. 세대를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셨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다. 여름 캠프 주제찬양 '여호수아 본받아'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나 되어 기뻐 뛰며 춤을 췄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어린 영혼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온 마음과 온몸으로 올려 드린 찬양이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경험이 있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소망을 내게 보여 주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된 자리로의 초대였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만 같아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를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세워가심을 보여 주고 계신다.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차세대를 섬기는 사명의 현장에 많은 성도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교육선교스쿨 7기 수료 간증



교육선교 동역자가 되고 싶다!

/ 유진 성도(S브릿지공동체)

영어예배에서 알고 지내던 장로님과 양재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 교사 시절 알게 된 선생님의 거듭된 권면으로 '교육선교스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교사직도 없는 데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내가 누구를 교육해야 할지, 교육선교스쿨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제자학교(JDS)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한국 기독교 역사가 떠올랐고, 교육을 통해 선교를 시작하신 선교사님들께 빚진 마음이 들었다.

현장 탐방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을 다녀왔다. 11년 전 영어예배 순장 모임에서 알게 된 David가 교장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믿음의 동역자요,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에 감사했다. 다시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냥 신기했다. 조별 모임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조원들의 삶에 깊이 감동했다.

교육선교스쿨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도록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다른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또 교육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감당하는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역시 교육선교가 될 수 있다. 내가 가진 작은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다.

교육선교스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경험이었다. 배운 내용을 머리에만 간직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고 싶다. 특히 다음세대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싶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가신다. 배움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맡겨 주신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육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싶다.

▌와이 이스라엘 2기 수료 간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 이재춘 장로(부천온누리교회)

'와이 이스라엘' 과정을 수강하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신약은 그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이 더 깊이 와닿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복음 역시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이방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먼저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며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에 비유한다. 또 그 가지가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씀으로 복음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부모와 조상을 무관심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듯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역시 바른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스라엘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다. 결국 이방인인 우리 역시 그 죄 앞에 함께 서 있는 존재이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데에는 기독교의 잘못도 작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마저 거부감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기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계획하셨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웠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판단하고 행동하는 잘못을 범한다. 와이 이스라엘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배웠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양재 헬로맘 임신 · 출산 후 스쿨 수료 간증



함께함이 기쁨이다!

/ 이향주 자매(강동온누리교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10여 년 전 초보 엄마 시절, 나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다"라는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에 짜증이 날 만큼 지쳐 있던 초보 엄마였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자꾸 열이 나고 번갈아 가며 아픈지, 밤을 새우다시피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울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함께 울던 시절이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때가 가장 좋을 때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사춘기 중학생을 둔 학부모가 되었다. 방문을 잠그고 대화도 잘 하려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삶에 내가 전부였던 그 시절이 아련하게 다가온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양육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보다 인원이 줄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학기도 늘었다. 당시의 끈끈함이 그립지만, 헬로맘에서 받은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하다. 나이 어린 자매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가 아파서 잠 못 들고 동동거리던 그날의 내가 떠오른다. 내 기도제목을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주신 자매님들과 목사님들의 격려와 기도가 지금도 신앙의 버팀목으로 남아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생각하곤 한다. 홀로 감당하기 벅찼던 시간을 함께 울고 웃어 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특히 초보 엄마를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 부부와 신앙교육을 가르쳐 주는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이 있다. 아이를 키우며 외롭거나 힘든 마음이 들 때, 헬로맘 스쿨에 나와서 평생의 귀한 기도 동반자들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 함께함이 기쁨이다.

장로칼럼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안연환 장로
(S브릿지공동체 대표 장로, 사회선교 생명과 환경팀)

올해 온누리사역축제(OMC)에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선포됐다. 앞으로의 40년은 '하이브리드 교회'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온누리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그 위에 성령을 함께 세우시며, 앞으로 40년의 방향에 분명한 표지를 세워 주신 것 같았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더욱 나아가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겼다.

'복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강의들도 마음에 와닿았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정의', '거룩과 화평', '교제와 선교', '관계와 제도', '친밀함과 개방성', '돌봄과 훈련',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시간을 여는 복음'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붙잡고 가는데, 바로 그것이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으로 이해되었다. 새로운 내용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거다"라는 공감이 절로 일었고, 감사와 감동, 그리고 기대가 함께 밀려왔다.

그렇다면 리더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리더들은 먼저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는 각자 맡은 사역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온누리교회가 하이브리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구조적, 실천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0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교하는 교회'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였다. 올해 OMC 강의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 유대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 사마리아는 이웃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며 땅끝 선교를 정말 잘해 왔다. 그 선교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다만 앞으로의 40년은 우리 지역과 이웃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돌보는 사회선교에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도에 대한 기대도 크다.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기도도 중심이 되는 교회로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 싶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기도 운동이 성령 운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지금도 각 부서에서 합심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도록 힘쓰려고 한다.

교회에 새로운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30대 이상 싱글들이 모인 S브릿지공동체에서 대표장로이자 멘토로 섬기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그러나 나는 '독신의 영성'도 주장하고 싶다.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사역하지 않았는가.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자신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들을 교회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격려하며, 리더로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가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고현주 권사
(대전온누리교회)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다. 여성사역을 맡아 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겼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틀을 깨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기도제목이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그런 나에게 큰 터닝포인트가 된 게 지난해부터 받기 시작한 선교와 전도 양육 프로그램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양육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마침, 올해 온누리사역축제(OMC)를 앞두고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올해가 새로운 40년의 첫해"라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셨다. 교회 안의 공동체로 머무는 '모달리티'를 넘어 '소달리티'로 나아가는 '하이브리드 교회'가 그 비전이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갈급해하던 내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았다.

선교와 전도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소명이며, 그 결과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다. 소명을 분명히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게 무엇일까? '신앙의 순수성'이다. 어느 공동체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는 그 어려움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풀리는 모습을 보았다. 각자 말씀 앞에 나아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서로를 다시 품는 자리로 나아갔다. 그래서인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신앙적으로 참 성숙했다. 그 성숙함은 혼자 세워지지 않는다. 성도를 세우는 양육 프로그램과 말씀, 그리고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성도를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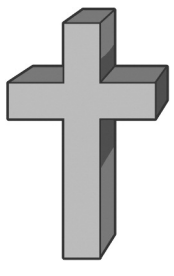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순수한 신앙을 성도들이 잘 지키면 교회는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가 더 힘써야 할 부분도 있다. 교회라는 건물과 시스템을 박차고 나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도의 섬김이 국내 전도나 사회선교 등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더욱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일을 모든 성도가 당연히 여기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새로운 40년을 향한 도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 위에서, 교회의 방향성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나 역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소명을 붙들고 싶다. 앞으로 내 남은 삶의 시간에는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한다. 내 이름과 얼굴은 잊혀도 좋다. 다만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성도를 섬기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싶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아름다운 동역과 촉매가 되는 선교



이요한, 박뵈뵈 선교사
(두란노국제선교회)

지난 6월 2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 몽골인 17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나 학생으로 지내다 몽골로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 전도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에서 처음 열린 '하베스트(HARVEST)' 집회였습니다.

온누리M센터와 전도본부, 그리고 선교 현장이 협업한 이 집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룬 아름다운 동역이었습니다. 협력과 도움이 없었다면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맞춤전도 형식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많은 몽골인 친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40여 명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성북공동체 아웃리치팀 56명이 몽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몽골 성도 75명과 함께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집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 한 가족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개 팀이 16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불편한 도로를 왕복 10시간이나 달려야 하는 먼 여정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몽골이 마주한 도전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몽골복음주의협의회' 조사에서 몽골의 복음화율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1만 명 규모로 급속히 늘고 있고, 세속주의의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몽골 복음화가 더욱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북공동체 아웃리치팀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웃리치팀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경배와 찬양' 같은 차세대 연합집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몽골통계청'(NSO)에 따르면, 10~30대 인구가 170만 9,89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8.2%,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차세대를 복음으로 깨우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북공동체, 현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차세대를 영적으로 깨우고, 복음화하는 촉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28일에는 몽골 현지인 선교사와 목회자 11가정 37명(성인 21명, 자녀 16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00선교본부 멤버케어 아웃리치팀과 협업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웃리치팀원은 소수였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힐링캠프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몽골인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하며 여러 어려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로 목회의 열정과 사명감 없이 지내는 분도 계셨고, 부부 관계 문제로 우울증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1박 2일 힐링캠프는 그들에게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온누리M센터 출신 니마 목사는 바쁘게 목회하다 보면 가족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 늘 미안했는데,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서 가족과 관계를 많이 회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TIM(두란노국제선교회) 소속 아치트 선교사는 그동안 힐링캠프 같은 프로그램은 한국인 선교사 중심이었는데, 처음으로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두고 캠프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2000선교본부 멤버케어 아웃리치팀의 섬김은 현지인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명감을 회복하는 변화의 촉매였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맺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웃리치팀과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촉매로서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동역과 촉매가 되는 선교를 함께하도록 도와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홀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3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 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혜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수원 031.895.6500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주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룸홀(3층) / 꿈땅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중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땅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땅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 4부 14:0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10:00, 12:00 사이닝홀 / 유아부 10:00, 12:00 누리홀 / 유치부 10:00, 12:00 꿈아이홀 / 유년부 10:00, 12:00 드림홀 / 초등부 10:00, 12:00 기쁨홀 / 꿈땅3부 14:00 드림홀 / 소년부 10:00, 12:00 믿음홀 / 파워웨이브 8:00, 10:00, 12:0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2:0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땅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땅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용인**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견로 213 4층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01821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유현목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김태용
최영민

◈부목사(전임)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한솔 길혜영 김관수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완
김한국 김 현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렵문홍 문영재 민근홍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원
박성천 박성훈 박수환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성우 서수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종
신원석 신주용 손정훈 송동주
송재호 안대진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여성민 오 민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길중 윤마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승호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이형목 이호준 이환희
임동현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장제홍 장지훈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주하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충희 해롤드김 허원희
황문규 황유일

◈전도사(전임)
유석현 유현우 이예찬 장건우
최강호 홍근영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이기훈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홍미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미애 박상준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컬
서영철 손슬기 싱루애놉 양현수
윤랠레쉐이 에릭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진이 이진희 이현경 임성진
임진숙 정동윤 정연영 정진모
제인량 최선재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강혜은 고우리
고현근 구길모 국지환 권영찬
권순건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기태 김동환 김명초 김민수
김민희 김범석 김빛나 김소망
김승희 김신영 김에스더 김영범
김영옥 김예은 김예찬 김요한
김 원 김유미 김재현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화목 김효진
나가노 마사토 나영필 남 혜
네우쉐퍼레 드미트리 뎅젠닌다 문수진
미즈바을 박 권 박성훈 박시온
박영애 박의력 박정민 박종필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성진
배윤주 샴논 펠든다 서나영 서은규
서은지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송찬욱 송 현 송현우 신대환
신지수 신호철 아레르 자든갈 안류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영광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국화 우수진 우승희 유엘리사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상영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임경미 임노완 임효영
장성열 장영주 전가윤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승혁 정영현
정유나 정주은 정찬중 조민희
조슬기 조영찬 조예서 조은실
조준우 조현주 조혜원 지석구
지예찬 주승환 주우형 주영진
차선일 최성진 최 은 최형주
최혜정 추선형 하예림 하헌영
한숙희 허영은 홍세나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명세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병옥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역 김영수 김용기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준규 김준용 김준홍 김지홍
김창욱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나상권 나영욱 남상길 노기홍
노재한 류기범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박 공 박두원 박명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흥균 배기영 배 문
배병태 백남인 백승웅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성현 서진봉
서찬교 성주명 성창섭 손정래
손한기 송기선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종환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춘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기 이상덕 이상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대 이장로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한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임병수 임현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순풍 정영규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탁 정현덕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성현A 조성현B
조진호 조청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동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영대 한종대 한창격
한양희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허광수 허복만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정표
홍해남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기흥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석휴 강은철 강종도 강찬옥
강창재 강태욱 고길법 고영대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경용 구자엽 국중대
권순형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섭 김동수 김동우 김동원
김동준 김동환 김만순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귀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영생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의래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정민 김정훈
김종민 김종완 김종호 김지학
김지현 김창석 김창원 김형겸
김태형 김해기 김현주 김형준
김형석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남명현 남윤영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경한 노전기 노지준
노하수 라상원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건일
박구병 박균명 박덕현 박동현
박명균 박명신 박복응 박성규
박승병 박언용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태식 박태준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효신 박흥선
방찬종 배승호 배창준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성광제 손기철 손기태 손태용
송동섭 송영봉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형우 신헌승 신현식
신현일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헌 안연환 양상식
양 웅 양성철 양준홍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세현 오승탁 오의식 용내문
우승엽 우시정 원종호 유봉국
유우선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동욱 이봉걸
이삼형 이상율 이상준A 이상준B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욱 이재춘 이정구 이종우A
이종우B 이종철 이주호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태열 이학일
이해달 이홍선 임창우 임 훈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관수
장광열 장문석 장성수 장승훈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진국
정광열 정기삼 정병호 정민호
정석순 정연식 정영기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용주 정운섭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재환
정제범 정찬희 정탁영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환 주성대 주영창 주재량
지상목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병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이정 최종필 최준관
최준영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갑천 하상진 하주헌 하태승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상천
한승만 한영우 한왕석 한필규
허 경 허대행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황성룡 황성주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용원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전영한 정광택 정남식
정몽준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홍순직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박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한결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우석
김윤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윤규
박정규 손창우 송성강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원이주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명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조지은 정성미 정필희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혜경 홍우석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수 김상례
김상훈 김성근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김형중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미은 박승훈 박종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제현 심형진
안성진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노우에 마키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주영 이청원 이토 히로시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증재 허 민
홍동욱 홍 정 Joel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오지혜
이다니엘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시하라 노리코 이영은 이용기
이은실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민정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청훈
한현희 핸슨오 Amos L e 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Leo
Wang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권우중 김경덕
김경선 김수광 김수호 김 완
남 영 노흥규 백남인 백호현
신중수 송창도 안종인 우광방
우승호 윤영오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용하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오현 고다이라
김승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헌제
송태민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상헌 이수성 이승구
이은창 이준상 손정래 장민용
전수열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Christine Kwon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권재현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승호 최태영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온누리선교재단 양재 온누리 커피숍 정규직원 모집
모집: 커피숍 바리스타
우대: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형태: 정규직
지원: 입사지원서(자유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인사팀(02-3215-3102)
※ 자세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 확인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모집
신청 대상 및 기간: 서울시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선정부터~12월)
내용: 환경미화, 도시락 배달, 돌봄 취약 계층 안부 확인 등
신청: 내방 신청(주민등록등본, 치매 검사 결과서 지참)
문의: 사회참여팀(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온누리교회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10/9(금) 서초C 정승연 성도 부군상 고 장재기
10/9(금) 서초C 정성진 성도 모친상, 안미진 성도 시모상 고 이주희
10/10(토) 분당A 이미소 성도 부친상, 한선희 성도 빙부상 고 이현창
10/12(월) 양재B 이순자 권사 부군상 고 유재도
10/12(월) 송파A 박경은 집사 모친상 조문상 성도 빙모상 고 문한옥
10/14(수) 서초A 호유진 집사 모친상 고 김학자
10/14(수) 도곡 이경왜 집사 부친상, 김준호 집사 빙부상 고 이태웅
10/17(토) 서초B 조혜숙 권사 모친상, 유철준 집사 빙모상 고 최병숙
10/18(일) 도곡 홍현정 성도 부친상, 한상근 성도 빙부상 고 홍만웅
10/18(일) 신용산 고 황재숙 권사
10/19(월) 용산 정태용 집사 모친상 고 홍평식
10/19(월) 양재A 현정순 성도 부군상 고 이병근 성도
10/21(수) 서초B 고수진 성도 부친상, 고미진 성도 부친상, 채찬병 성도 빙모상 고 고한석
10/21(수) 양재A 마미경 성도 부친상, 김학범 집사 빙부상 고 마성락


퐁당 5주년 특별기획
CGN
세상을 치유하는 목소리
힐링보이스
당신의 마음을 울릴 단 하나의 목소리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OTT '퐁당'을 설치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힐링보이스 시청안내
IPTV : KT Genie(237), SK Btv(292), LG U+(271)
퐁당 주일 오후 3시 공개 CGN TV, 유튜브 주일 오후 5시 방송
'퐁당' 다운로드
후원 / UNION SB MEDIHEAL 법무법인 산지 MEGAZONE CLOUD
협력 / K-CCM 한국기독음악협회 국민일보
CGN후원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RS 060-705-0000 후원 문의 02-796-2243